

# 사설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의 건의로 촉발된 '시·군 통합' 논란이 지역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현내면과 거진읍은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이지만, 속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토성면에서는 삼삼오오 모이면 통합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행정의 중심지인 간성을 시가지권에서도 통합에는 반대하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성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달 30일 '시군 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통합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고성군의 주권을 넘보는 무례한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공동 대표 선임과 집행부 구성 위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 뒤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에 올라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거부 운동까지 벌이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고성군의 발전과 상경기 회복을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성군과 군의회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난 7월 고성군의회에서 논란

이 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 확대됐던 속초 거주 공무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임복천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장은 이날 "속초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30%다. 이 차제에 군수가 잘해야 될 것 같다. 왜 월급은 고성에서 타고 속

초에서 쓰는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이래서 속초가 우리를 자꾸 알본다. 고성 수복 이래 60년 동안 살아왔다. 젊은이들이 꼭 고성군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울먹이듯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통합 반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느닷없이 속

초 거주 공무원들이 도마에 오르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우리가 동네 북이냐고 항변하는 공무원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디에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며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고성군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산불이 발생하고 태풍이 몰아쳐오는 것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지만, 통합이 되면 고성군이라는 이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고성군의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목소리에 '뚝방귀'를 쐬다면 고성군의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젊은이들이 고성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노병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 통합 논란, 위기를 기회로 삼자

화수분이라 함은 보배의 그릇으로,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두면 새끼를 쳐서 끝없이 재물이 噴出(분출)되어 소비해도 줄어들지 아니하는 일명 보물 그릇이다.

인류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2001년 9월11일 잊을 수없는 이 날을回顧(회고)하면 '미국 내에서도 처음엔 강·온 翼派(이파)의 대립상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여론이 언제 그랬더니? 하였듯이 대외적 명분과 국익이라면 미국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서 아프가니스탄 전 정권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완전히 무너뜨린 현대판 제국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였다. 리비아 정변에서도 이들은 나토군에게 작전권을 소리 없이 넘겨준 사례이다.

미 국민의 저력에서 빚어진 불 때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항상 테두리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미 국민의 저력이자 정치사의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그 사건이 인류의 죽음과 공포로부터 자유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장애되는 문화를 분쇄한다는 것은 미 국민과 인류를 위한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오카 재난에 파견된 우리인명구조 봉사단의 팟, 루사 Tornado typhoon에 대하여 誰怨誰咎(수원수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이웃과 수재를 당한 어린이 어른 노인 환자 전념봉사자 쓰러진 집 폐허된 농경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터전 등 벼를 세우는 모습 중

###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 현대판 화수분의 새 지평

장비 정지작업 하는 모습 봉사활동 하는 모습 재생재기모습과 군 장병들의 도로복구 작업 삽질의 손길과 땀방울 젊은 장교의 순직. 지원 나온 장병들의 숙소가 없이 야영하며 봉사활동 하는 모습 또는 정당대표 정치인들의 진지한 봉사활동 피부병감염 몸살 앓는 봉사자 소방관들의 인명구조 시신 찾는 등 위험하고 험난한 흉터물에서도 참 이웃사랑 하는 이들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이재민의 재기의 손발의 움직이는 모습 患難相助(환난상호; 어려움) 相扶相助(상부상조; 서로도움) 美風良俗精神(미풍양속; 백의민족 정신). 또한 모금함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자원봉사자 공무원 경찰관 학생 등의 힘이 모아진 위대한 국민정신 집약화, 불꽃이 분출되었다는 것이다. 곧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참된 모습을 보여준 예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美意(미의)는 현대판의 화수분일 뿐만이 아니라, 새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긍지인 은근과 끈기이고 정이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좋은 이웃사촌 태국엔 물 폭탄, 터키에서 지진으로 생사고통에 德業相勸(덕업상권 : 덕을 베풀)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너나 함께 사는 인류는 하나, 지구촌을 위하여 환난상구에 힘써야겠다는 것.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 경험한 비와 같이 의연금 음식물 운반 또는 청소 의료진의 진료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말에는 팔만 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금언이 있어요.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로 '세계인이여 초청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육체적 물질적 부조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정경고 살기 좋은 터전이다. 그러나 흥망성쇠는 이곳도 있다. 이재민의 복구현장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은 한푼 두푼 일생동안 못 입고 못 먹고 모은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한숨 쉬고 슬픔과 고통을 우리함께 나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口傳(구전설화)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정성을 모은 쌀 도

가니와 정한수를 떠놓고 부를 위한 정성의 공을 들여오던 차에 아침밥을 짓기 위하여 쌀독을 들여다보니 쌀이 다 떨어져서 할 수없이 좀 도리 쌀 도가니(밥 지을 때 마다 쌀 한줌씩 모은 항아리)로 가보니 쌀이 가득차고 넘쳐 마루 바닥에 흩어져 있어도 쌀 한 톨도 버리지 않고 정성껏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쓸어 담고 밥을 짓고 또 다음날에도 반복계속 쏟아졌는데 어느 날 친척인 喪主(상주)가 쌀이 넘쳐 쏟아진 것을 귀찮게 여기며 투덜거리면서 쏟아진 쌀을 쓸어 독에 넣었더니, 그때부터 쌀이 넘치지 않았다"는 寓話(우화)가 있다.

즉 화수분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 작던 크던 간에 그 복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오래도록 지속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옛말에 '들어온 행복 깨뜨린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문제이다. 즉 糊口之策(호구지책) 시절의 빈곤과 궁핍으로부터 해방되어 사는 이에게 고의 과실 이든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나에 예화에 지나지 않지만 지탄을 받고 증오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다 넓은 시야로 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가 이웃 사랑이요 나아가 문화 국가생활을 위한 실천이라고 본다.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 찾기 어렵고 별로 기억하기도 싫은 일만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다. 콘돌아 박스를 건드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자는 것, 오늘의 화수분은 우리 손에서 이뤄지고 내일의 소망을 성취하여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 ◇편집국에서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 산간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변해,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려고 관광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주일 내내 내린 이번 비가 별로 달갑지만은 않았다. 농사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기도 불편

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불편을 겪고나니 평소에는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햇빛'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이나, 사소한 문제로 서먹해진 이웃들에게 안부전화라도 걸어보자.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